

## 2024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온라인 국제학술 심포지움 결과 보고

한승훈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2024년 11월 16일(토),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KASSE)는 International Social Studies Association(ISSA)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의 크리스토퍼 마텔 교수를 초빙하여 "활동적 시민의식을 위한 역사교육 (Teaching History for Active Citizenship)"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본 학회에서는 마텔 교수의 저서 "Teaching History for Justice: Centering Activism in Students' Study of the Past" (케일린 스티븐스와 공저)를 읽고 토의할 공부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공부 모임은 올 초에 시작하여 월 1회 진행되었으며, 차보은, 문현진, 이서영, 이창현, 윤요순, 김혜린, 이수경, 김종성, 김홍탁, 김혜란 총 10분이 발제 해주셨습니다.

마텔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정의 지향적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으로, 이번 강연에서는 역사교육이 집단적 행동과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텔 교수는 미국 역사교육에서 흔히 나타나는 개인 영웅 중심의 지배적 담론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관점을 심어줄 수 있음을 비판하며, 이를 넘어서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적 운동과 협력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지향하는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가적 사고, 비판적 다문화주의, 변혁적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이 소개되었습니다.

첫째, 활동가적 사고는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의 집단적 사회운동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도록 돕는 교육 접근입니다. 둘째,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변혁적 민주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원칙을 단순히 배우는 데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민주적 시스템을 활용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텔 교수는 이러한 교육적 접근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행사의 진행은 본 학회 국제학술교류국장인 차보은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며, 마텔 교수님의 강연은 전문 통역사에 의해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차보은 국장님의 소개를 시작으로, 마텔 교수님의 강연, 본 학회 공부 모임에 참여하셨던 김혜란, 문현진 선생님의 지정 토의, 질의응답의 순서를 거쳐 학회장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정 토의를 위해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김혜란 선생님께서는 정의를 위한 역사 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지식이 선택되는가에 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식과 정의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텔 교수의 저서에 주된

내용 중 하나였던 활동주의(activism)적 측면에서 지식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여쭙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현진 선생님께서는 책에 소개된 "행동가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activists)"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서 기대되는 실질적 변화 및 교사들의 불안감과 관련하여 실천적 함의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은 채팅방에 직접 영문으로 질문을 올리거나, 오디오를 키고 직접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활발한 토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학회원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정의와 참여 중심의 역사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교과교육의 발전과 실천 가능성을 넓히고, 정의로운 시민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